

삼성Atofina, 임직원 대화창구 마련

고홍식 사장, 남다른 가족경영 눈길 ... 사내 인터넷망 <골든벨> 오픈

임직원의 정기 간담회와 함께 가족경영을 펼치고 있는 삼성Atofina(대표 고홍식)가 2월9일 사내 인터넷망에 최고경영자와의 대화창구인 <골든벨>을 개설했다.

최고경영자와의 1대1 대화를 통해 기업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물론 임직원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즐거움, 가정의 길흥사 및 주변 동료들의 미담 등 소소한 개인사까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.

삼성Atofina의 사내 인터넷망 <골든벨>



고홍식 사장은 <골든벨> 오픈에 앞서 사내 게시판에 통해 “CEO와의 대화는 회사발전과 임직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정”이라고 강조하며 “일방적인 의견청취가 아닌 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자”고 밝혔다.

<골든벨> 배너도 고홍식 사장의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친근감을 높였다.

고홍식 사장은 2003년 연말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신년인사를 담은 플래쉬 e-Card를 발송하고 모바일 오피스제를 시행중인 영업사원의 가정에 일일이 노고를 치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수시로 메일을 보내 임직원들을 격려해 왔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2/10>